

나주 이전 농어촌공사 15% 지역출신 채용

105명중 16명 ... 채용목표제·농어촌특별전형 효과

향후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롤모델 기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시행한 첫 공채에서 선발된 신입사원의 15%가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증가의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에서는 이번 결과가 앞으로 혁신도시는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이하 공사)는 본사 나주 이전 후 처음 시행한 5급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선발한 105명의 입사자 중 16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라고

고 밝혔다.

이번 공채에서 전체 입사자 중 63%에 해당되는 66명의 최종합격 소제자가 지방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 15명(13.7%)으로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2년 11명으로 9.7%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 처럼 최종합격 소제자가 지방이 많고 특히 광주·전남 지역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에 대해 본사가 나주로 이전한 영향도 있지만, 이전이 확정된 이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채용목표제' 등 우대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최종합격의 학교 소제자가

광주·전남지역인 합격자가 10% 미만일 경우 10%까지 우선 채용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한 공채에는 행정직에 7000여명이 몰려 8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공채결과 채용된 109명 중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 15명(13.7%)으로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2년 11명으로 9.7%였던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변화다.

이 밖에도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도 지역인재 채용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부모 중 한 명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공사는 특별전형에 따라 전체 채용인원 중 50%를 농어촌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는데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강환 공사 인사복지처장은 "본사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발전이 이바지하면서도 농어촌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농도인 전남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만큼 제도를 확대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대학의 취업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사업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에 있다"며 "농어촌 공사 처럼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인재의 발굴과 채용을 통해 지역과 상생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45.56 (-25.39)

금리 2.18%

코스닥 541.96 (-4.61)

환율 1102.20원 (-5.60)



10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쿠보텍 사옥에서 열린 산업단지공단 우수클러스터 기업투어 행사에서 정철용 쿠보텍 대표가 지르코니아 제조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단공 제공>

치과용 합금·보철 지르코니아 블록 개발

산단공 6번째 우수기업 쿠보텍

치과용 소재부품기업인 ㈜쿠보텍(대표 정철용·광주시 북구 월출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한 6번째 우수 클러스터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 클러스터 기업투어 행사는 산단공이 독자적인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하반기 첫 실시됐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클러스터 회원사인 치과 관련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미려한 디지털 보철 소재인 지르코니아 블록과 임플란트 시스템, 인공뼈와 같은 생체재료, 구강 케어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특히 식

약제 인증(KFDA/CMP)은 물론 해외시장을 위한 FDA, CE 등에 대한 인증도 획득해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정 대표는 창업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뒤 2009년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과 2011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적합인증(GMP), 니켈합금 미국 FDA 승인 등 관련 분야의 수많은 인증을 받았다. 매출액의 평균 16%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 개발된 치과용 합금은 인체친화형 합금으로 베릴륨(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으면서 주조성이 우수한 쿠보텍의 핵심제품이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시장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사업 제품군의 다각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세계 최고 광·(치과)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971-0183. /임동률기자exian@

실업률 광주 ↓ 전남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지난달 광주지역의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 감소(-12.0%)했다.

광주의 실업률은 지난 6월 3.1%를 기록한 이후 7월 2.7%, 8월 2.8%로 소폭 상승했지만, 9월 2.5%, 10월 2.3%로 내려갔다.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7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명(1.3%) 증가했다.

취업자의 경우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1만4000명, 9.0%), 건설업(5000명, 7.6%),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4.2%)은 각각 증가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000명, 1.8%), 농림어업(4000명, 17.4%), 광공업(4000명, 3.3%) 각각 감소했다.

전남의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4.5%) 증가했다.

전남의 실업률은 지난 8월 2.9%를 기록한 이후 9월 2.4%, 10월 2.2%로 하락했다.

고용률은 62.2%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4000명(1.6%) 증가했다. 취업자의 경우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7.4%), 광공업(1만3000명, 16.6%),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 2.6%)은 각각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업계 최초 고객 정보 관리 전자 문서화

최초로 상품관찰 등 고객 대면 서비스 시설의 고객정보 수집·관리를 전자문서화해 처리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1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상품관찰실에서 한 여성 고객이 태블릿 모니터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있다. 광주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상품관찰 등 고객 대면 서비스 시설의 고객정보 수집·관리를 전자문서화해 처리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영업전략 부서 대폭 확대·지역공헌실 신설

본부 조직개편·지점장급 인사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9일 영업력 향상, 본부조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공헌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광주은행 본부조직 개편과 함께 지점장급 고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영업력 향상을 위해 영업전략본부 내 여신전략부와 수신전략부를 확대 개편했다. 특히 여신전략부에 컨설팅팀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하기로 했으며, 수신전략부에는 CS사업팀과 채널기획팀을 배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서울 등 역외지역에서 영업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특히 지역공헌실을 신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또한 인재 육성 강화를 위해 기존 인재개발팀을 인재개발실로 승격시켰다.

민영화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중서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광주은행을 최고의 중·서민 및 중·중견 기업 전문은행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지점장급 인사의 경우 영업력 강화를 위해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을 신규 발탁했다고 광주은행은 밝혔다. 광주은행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2015년에도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상의-IBK기업은행, 지역 중기 대출 지원 협약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지역 중소기업에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광주상의는 10일 IBK기업은행과 '회원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서비스를 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광주상의 은행 예탁금의 2배수에 해당하는 특별펀드를 조성한다. 대출 금리는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1.

25%포인트를 자동감면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여도,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30%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된다.

박 회장은 "이번 동반성장협력 협약으로 회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경매”

경매 서둘지 마라!
좋은물건은 쏠아진다!

탐정처럼 분석하고
목사처럼 협상하고
검사처럼 다뤄라!!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특수물건만 취급
- ▶ 1대1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